

국립심뇌혈관연구소 명칭 원상회복 촉구 건의안

[차상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599
----------	------

발의연월일 : 2025. 3.

발 의 자 : 차상현, 심민섭, 오원석,
나철원, 서춘경, 김연수,
최미화 의원(7명)

1. 주 문

- “붙임과 같음”

2. 제안이유

- 장성군에 최초 설립되는 국립심뇌혈관연구소는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관리, 연구의 핵심 거점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국립심뇌혈관연구소의 명칭을 국립심혈관 연구소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국립심뇌혈관연구소의 명칭변경은 사업규모 축소, 지역민의 의견수렴 부재, 법적·제도적 정당성의 부족으로 국립심뇌혈관 연구소 명칭의 원상회복을 강력히 촉구함.

3. 주요내용

- ‘국립심뇌혈관연구소’ 명칭 원상회복 촉구 건의
(당초 : 국립심뇌혈관연구소 → 변경 : 국립심혈관연구소)
- 지자체와 협력하여 성공적인 국립심뇌혈관 연구소 설립 촉구

4. 참고사항

- 건의안 : 붙임
- 송부처 :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전국시군구의회, 전국 시군구

국립심뇌혈관연구소 명칭 원상회복 촉구 건의안

장성군에 최초 설립되는 국립심뇌혈관연구소는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관리, 연구의 핵심 거점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국립심뇌혈관연구소의 명칭을 국립심혈관연구소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우리 장성군의회는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에 대해 강한 우려와 반대의 뜻을 밝힌다.

첫째, 사업 규모 축소로 인한 본래 설립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심뇌혈관’에서 ‘심혈관’으로 명칭이 축소되면 향후 연구 범위 및 사업 확장성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둘째, 지역민 의견 수렴의 부재이다.

질병관리청의 일방적인 명칭 변경 결정은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로, 수십년간 인식해오던 명칭을 변경할 다수 지역민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는 바, 반드시 지역사회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적·제도적 정당성 부족이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연구소 설립 취지에 따라, ‘국립심뇌혈관연구소’가 법적으로 정당한 명칭이다.

질병청이 주장하는 ‘국립심혈관연구소’는 법령에 근거 없이
임의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서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국립심뇌혈관연구소’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장성군의회는 질병관리청이 진행하려는 명칭
변경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당초 국립심뇌혈관연구소 명칭
으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향후 연구소
운영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을 포괄하는
국립심뇌혈관연구소 명칭으로 즉각 원상회복하라!

(다함께) 회복하라! / 회복하라! / 회복하라!

하나. 질병관리청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성공적인 국립심뇌혈관
연구소 설립에 최선을 다하라!

(다함께) 다하라! / 다하라! / 다하라!

2025년 3월 11일

장 성 군 의 회 의 원 일 동